



우라늄 探査 착수 韓電 9월부터 가봉국서

韓電은 앞으로 4年 6個月 동안 약 60억원이 들어갈 가봉국 우라늄 探査를 오는 9월에 착수한다.

지난 3月 19日 韓電, 프랑스의 코계마社 및 가봉국간에 서명된 이 우라늄공동 開發事業은 國內 原子力發電所에 쓰일 우라늄을 개발 수입키 위해 推進되는 것인데 韓電은 준비작업을 위해 기술자 등 실무진을 파견할 예정이다.

韓電은 이 나라에서 우라늄을 開發하게 되면 持分 41%에 상당하는 우라늄을 갖게 되고 나머지 59%중에서 제3국에 판매하는 물량이 있을 경우 우선 구매권을 갖게 된다.

古里2号核연료제조用役 美 웨스팅하우스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社는 韓國電力으로부터 오는 83年 가동 예정인 古里2号 原子力發電所의 核燃料 제조용역제공을 위한 1천 3백만달러 규모의 계약서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웨스팅하우스社는 古里2号 原子力發電所가 古里1号와 마찬가지로 웨스팅하우스社가 설계한 加壓輕水爐型이며 出力은 약 600MW에 달한다고 말했다.

내년 研究費 300억지원 科技處 360여 國策 선정

科技處는 내년에 벌리게 될 3백 60여개의 국가연구과제를 선정, 300억원 규모의 연구자금을 예산에서 지원키로 책정했다.

科技處가 산하 연구기관들의 내년도 연구 추진방향을 심의 경제기획원에 예산을 요청한 國家연구과제 조정내용에 따르면 연구비는 올해의 150억원 보다 2배 늘어난 300억원으로 책정했으며 연구과제로는 산하연구기관이 신청한 700여개 연구과제 가운데 과학화 운동과 기초 과학분야를 뺀 360여개 과제가 선정됐다.

내년에 연구소 가운데 가장 많은 국책연구과제를 추진하는 곳은 KIST로 150억원의 연구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책연구과제 예산은 경제기획원이 짜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키 위한 것이다.

과기처는 이번 국책연구과제 조정작업을 통해 에너지와 자원 관련기술, 공해방지 기술, 工業化를 위한 核心기술, 소프트웨어, 특화산업 기술 등 國家的으로 시급한 대형과제를 研究하는데 중점을 두어 과제를 선정했으며 중래 실시해 온 생활 과학관련 과제는 과제선정에서 제외한 것으로 밝혀졌다.

技術用役輸出 現行대로 窻口 一元化 현실성 없어

科技處가 기술용역 輸出을 촉진하기 위해 技術用役 育成法을 고쳐 건설과 플랜트의 해외 진출 창구를 기술용역업으로 한데 묶어 1元化하려던 계획은 경제기획원, 상공부, 건설부 등 관계 부처의 반대에 부딪쳐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科技處는 業界 대표로 構成된 技術用役 輸出振興協會의 건의를 받아 5月 31日 경제기획원 상공부, 건설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 회의를 소집, 현재 건설업체가 노동수출에 바탕을 두고 단독으로 海外에 나가는 것은 長期的인 輸出振興策이 못되기 때문에 外國처럼 技術을 앞세울 수 있는 기술용역업체에 시공업체를 한데 묶어 해외 진출을 시도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나 관련기관들의 반대로 당분간 시공업체를 中心으로 한 현행방식을 그대로 밀고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 실무자들은 산업설비를 비롯한 대형건설 시공에 있어 기술용역업체들이 이를 맡을 수 있을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체대로 건설업의 해외 진출은 해외건설 촉진법, 플랜트 수출은 플랜트수출 촉진 규정, 기술용역은 기술용역 촉진법 등 3元化된 체도를 일정기간까지 밀고 나갈 것을 주장했다. 현재 해외 면허를 갖고 있는 기술용역 업체는 20개社이며 약 40개社가 면허를 신청중에 있다.

古里原電1号 稼動중단 여름安全점검

韓電은 6月 1日부터 19일까지 古里 原子力發電所 1号機의 가동을 중지, 간이 점검작업을 실시키로 했다.

韓電에 따르면 연차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작업 기간중 韓電측은 여름철의 해수온도 상승에 따라 번식되는 어패 류에 의한 複水器 파이프(컨덴서)의 폐쇄방지를 위해 예방점검과 청소작업을 실시하고 아울러 原子爐 계통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도 병행, 안전도를 강화하게



된다.

한편 古里 原電1号機는 1月부터 5月末까지 11억 8천 4백만 kWh의 발전계획량을 초과, 5월 29일까지 12억 1백 40만 kWh를 발전했다고 한전측은 밝혔다.

佛 소그레아社 선정

韓電·潮電타당성조사

韓電은 조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대상회사로 프랑스의 소그레아社를 협상 제 1순위社로 선정하고 그 내용을 통보했다.

韓電은 英國의 EPDC社, 캐나다의 사위니켄·엔지니어링社, 프랑스의 소그레아社 등이 제출한 용역신청서류를 평가한 결과 프랑스의 소그레아社를 협상 제 1순위 대상회사로 선정했다.

韓電은 오는 7월부터 81년 6月末까지 현장조사를, 81년 9月末까지 타당성 조사결과를 보고서를 통해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잡고 있다.

英 科學技術教育展개최

28個 專門업체參加

英國 科學技術教育 전시회가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는 英國의 28個 전문업체들이 참가. 각종 실

험장비, 학생용 전자계측기기·質量분석기·냉동기기·전자공학교육 「시스템」「디지털 마이크로 프로세서」 등 다양한 과학교육용 보조기기가 전시되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原子物理學 教育用 遮蔽放射線源도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끌었다.

전시회를 마친한 주한영국대사관은 韓英양국간의 과학기술 정보 교류를 위해 전시회와 더불어 27일부터 3일간 「하얏트 호텔」에서 전시제품 使用法에 관한 「세미나」도 가졌다.

에너지開發研究費늘려 核爐국산화 등 重點

科技處는 에너지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91년까지 9백 23억 4천만원의 연구비를 에너지연구 개발에 투입, 현재 GNP중 0.02%에 불과한 에너지관련 연구비를 0.05%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과기처가 마련한 에너지 연구개발 투자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49억 2천 6백만원에 지나지 않던 에너지 관련기술 개발투자를 4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오는 86년까지 2백90억 7천만원으로 확대하고 6차계획이 끝나는 91년에는 1천억원에 가까운 투자를 하여 에너지 연구개발을 집중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91년에 가서 원자력기술개발에 가장 많은 6백 31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할 계획이며 대체에너지 기술 개발에 1백52억 7천만원, 석탄이용기술에 1백 23억 3천만원, 에너지관련기기의 효율향상에 15억 7천만원을 쓸 예정이다.

과기처는 원자력기술관련연구비 중 국내에 부존된 우라늄의 精鍊사용과 토륨의 추출기술 개발, 原子爐제작 기술의 국

산화에 대부분의 연구비를 투입하게 되며 대체에너지 기술 중에서는 石炭가스化, 태양에너지 활용기술에 중점적으로 연구비를 쓸 계획이다.

전국 環境放射線 조사

原子研 汚染度측정

韓國原子力研究所는 방사능 안전성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전역에 대한 環境放射線조사에 착수했다.

原子力研究所는 국토전역에 대한 환경 방사선 조사계획에 따라 전국의 43개 지점을 지정, 방사선 오염실태를 정밀 선사하여 分布圖를 작성할 계획이다.

연구소 환경연구실 팀은 지난 79년 馬山 昌原일대를 중심으로 自然放射線량을 측정, 조사한데 이어 6월부터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古里에서 半徑 80 km內的 慶南北 일대를 시발로 우선 原子力 관련시설이 들어서게 될 가능성이 많은 전지역에 대한 방사선 환경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原子力시설이 들어서기 전에 자연방사선량을 파악한 뒤 발전소와 같은 시설 건설 후의 오염도를 측정 비교하여 환경대책을 마련키 위한 것으로 선진국들도 대부분 국토에 대한 방사선 환경을 조사하여 分布圖를 작성해 놓고 있다.

이와 함께 원자력 연구소의 환경연구실은 原子力 이용시설과 부지를 중심으로한 환경보존, 이와 관련된 방사선 환경보존기술을 국책과제로 선정 과기처에 예산 신청을 해 놓았다.

연구소는 국토전역에 대한 방사선 환경조사를 늦어도 오는 84년까지 모두 끝낼 계획이다.



韓國科學院長에 崔亨燮博士를 選任

韓國科學院은 제 5대 과학원장에 崔亨燮博士를 선임했다. 「과학원의 발전목표를 適正에서 優秀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과 밝힌 崔박사는 原子力研究所長, 韓國科學技術研(KIST) 초대 소장, 과학기술처 장관 등 우리나라 과학계의 요직을 누루 거친 원로 과학자이다.

柳動資 두어總裁 에너지協力 協議

柳陽洙 동자부장은 「무어」美國輸出入 은행총재와 에너지 산업 분야의 협력지원 문제를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柳장관은 현재 건설중인 古里 2号機 原子力發電所의 건설비가 크게 늘어났

다고 지적, 이미 美國輸出入銀行이 공여한 차관이 추가해 상당액을 증액시켜줄 것과 原子力 9~12号機 건설에도 유리한 조건으로 차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 「무어」총재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科學者 해외研修를 지원 하반기 40여명 歐美·日 파견

한국과학재단(이사장 崔亨燮)은 국내과학자들의 해외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日本, 유럽, 美國 등 선 공업국의 연구기관에 40여명의 과학자와 연구원을 파견할 계획이다.

이 재단은 지난해 日本學術振興會와 교환한 科學協力양해각서에 따라 오는 9월부터 10명의 대학교수를 2~3개월 기간으로 日本에 파견, 연구소의 개학에서 공동연구 등을 벌이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이 파견계획에 참여를 희망해 온 대학교수는 60명에 달해 6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며, 파견분야는 물리 화학 전기 기계 등 10개 분야이다.

과학재단은 또 올 10월께 지급할 예정인 연구장려금의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연구조원급 30여명에 대해 유럽이나 美國에서 3개월에서 1년동안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3백만 ~

7백만원 정도의 연구비를 지원해 줄 예정이다. 한편 해외에 있는 2세 과학자를 활용하기 위해 이달말께 모두 10명을 초청 연구소와 기업체에서 1개월정도 머물면서 연구활동을 벌이도록 지원해주게 된다.

이들의 귀국여비도, 모두 과학재단이 부담한다

全海域 오염도조사 환경청. 10월부터

환경청은 19日 해양보전 종합대책을 마련키 위해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우리나라 연안오염도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청은 조사대상 해역으로 동·서·남해아울 모두 포함시키되 특히 馬山·(川·麗水·群山·蔚山·北坪·溫山 등 임해공단해역과 洛東江·錦江·榮山江·漢江 하구의 연안해역을 중점조사할 계획이다.

환경청은 이 기간동안 각 해역의 유류·중금속·방사선 오염도 및 赤潮 현상등을 조사,그 원인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조, 해양오염물질이 수산생물 특히 어류와 수중 식물의 광합성 작용에 미치는 영향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이달의 到着資料>

◆ 定期刊物物

- △ 原子力産業新聞(日本) 1021. 1022. 1023. 1024
- 1025. 1026. 1027. 1028. 1029. 1030
- △ ATOM IN JAPAN 80年 3, 4, 5月號
- △ BOLLETIN (英國) 80年 3, 4月號

- △ 原子力文化(日本) 80年 4, 5月號
- △ 非破壞 檢査(日本) 80年 2, 3, 4月號
- △ ATOM (英國) 80年 4, 5月號

◆ 參考圖書

- △ CANDU OPERATING EXPERIENCE (캐나다)
- △ GENERAL DESCRIPTION (GE社)
- △ FAPIG (日本, 第一原子力)